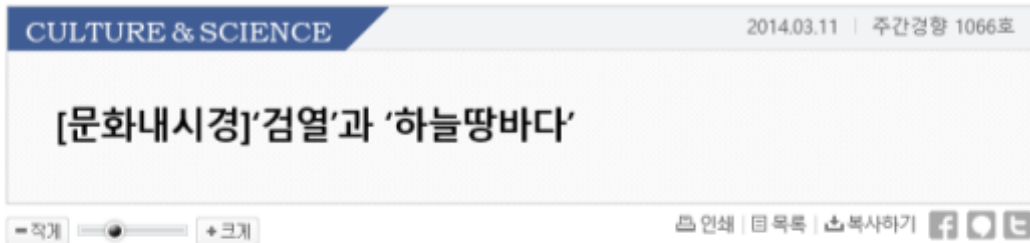


**MEDIA REPORTING FOR LANDSEASKY IN SEOUL 2014 (TOTAL: 25 ARTICLES FROM 22 PRESSES)**

1) WEEKLY KYUNGHYANG 주간 경향(MAR 11, 2014)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403041103001&pt=nv>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은 물론 실험성 강한 작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다채로운 [연산](#) 작품들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관-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북촌 일대 6개 [전시공간](#)에서는 [호주](#)의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기획한 '하늘땅바다'(LANDSEASKY)전이, 대안공간 [투프](#)(서울 서교동)에서는 아시아 각국 큐레이터들의 연합체인 '아시아 큐레이터 [네트워크](#)'가 기획한 'Censorship'(검열)전이 열리고 있다.

두 전시는 모두 치열하게 꾸려진 기획전이이라 각 주제에 대한 작가들의 깊고도 폭넓은 사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작가들이 소재나 기법, 전시형식 등 자신만의 시각에 따라 어떻게 그 주제를 풀어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로렌 브린켓의 "This Time Tomorrow, Tempelhof, 1채널 디지털 비디오.

대안공간 루프에서 3월 21일까지 열리는 '검열'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영상 전시 프로젝트 '무브 온 아시아'(Move on Asia)의 주제이자 전시명이다. 한국(서진석 황대원) 등 11개국의 큐레이터 15명이 추천한 아시아 12개국 작가 21명의 작품 24점이 출품됐다. 한국 작가로는 김다음이 참여하고 있다.

검열은 흔히 비민주적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 감시, 통제하는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만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과거와 달리 교묘하게 위장될 뿐만 아니라 억압의 정도도 더 심각하다.

정치권력자뿐 아니라 자본가, 기업, 종교 같은 각종 단체의 치밀하게 숨겨진 검열이 횡행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번역원 에마누엘 쾨에라의 저서 '검열에 대한 검은책'은 현대사회에서의 검열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다.

미얀마·일본·중국·대만·터키·쿠웨이트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이번 전시 참여작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예술가적 감성·시각으로 검열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특히 '자기 검열' 문제를 제기한 작품도 많아 주목된다. 쾨에라가 "검열의 최고봉"이라 말한 자기 검열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 검열이기 때문이다. '검열'전은 관람객에게 정치·사회적 검열은 물론 자기 검열 등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호주·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시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지원·기획하는 기관인 MAAP의 '하늘 땅 바다'에는 한국의 김수자·심철웅·정연두를 비롯해 8개국 작가 15명이 참여했다. 하늘과 땅·바다를 경계짓는 수평선(지평선)을 통해 공간성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탐구결과를 엿볼 수 있다.

수평선(지평선)은 땅, 바다, 하늘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의문 제기, 실재와 환영의 문제, 나아가 역사적·사회적 의미 부여 등을 펼쳐 보인다.



①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인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년)를 비롯해 안 디베츠(네덜란드) 실파 굽타(인도) 로렌 브린캣(호주) 바바라 캠펠(호주) 헤이모 조베르니그(오스트리아) 데렉 크랙글러(호주) 등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드러낸다.

인터랙티브 [스크린](#), 버티컬 활용 등 내용을 전달하는 작품의 형식도 다양해 눈길을 끈다. '하늘땅바다'전은 아트선재센터와 이화익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인, 갤러리 스케이프(아간 상영) 등 6곳에서 나눠 전시 중이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 2) JOONGANG 중앙일보 (MAR 05, 2014)

[중앙일보] 입력 2014.03.05 00:17 / 수정 2014.03.05 01:2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65579&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65579&cloc=olink|article|default)



김수자의 '보따리-알파 비치 나이지리아'(2001)는 하늘과 바다를 뒤집어 놓은 6분 18초 짜리 영상이다. [사진 아트선재센터]

### # 하늘과 땅과 바다

수평선·지평선은 자연에 드문 직선이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이 선을 대상으로 삼은 미디어 아트 연합전이 기획됐다.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스케이프·옴시스아트·원앤제이갤러리·이화익갤러리·갤러리인 등 북촌 일대 화랑 5곳에서 열린다. 호주 MAAP(Media Art Asia Pacific) 디렉터 킴 메이첸의 기획으로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순회한다.

네덜란드 미디어 아티스트 안 디베츠(73)의 기울어진 '수평선'(1971) 시리즈는 초창기 미디어 아트가 자연을 달리 보게 만드는 예술의 오랜 기능을 시도했던 증거다. 김수자의 수평선은 위 아래가 뒤집어져 있다. 다른 대륙으로 흑인 노예를 송출하던 나이지리아 알파 비치에서 가슴이 탁막혀버렸던 작가는 "저 수평선은 내가 본 선 중 가장 슬픈 선이었다"고 돌아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예술의 오랜 주제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한 일상의 부분인 동시에 일상을 넘어서는 영감을 줬다. '빨리빨리'라는 속도전 속에서 근시안이 되어버린 현대인에게 달과 수평선이 예술이 되어 손짓한다. 천천히, 멀리 보라고. 23일까지. 무료. 02-733-8945.

권근영 기자



3) NEWS DONGA (MAR 04 2014) <http://news.donga.com/3/all/20140304/61416744/1>

## '나'를 잠시 내려놓고, 느릿느릿 고요한 풍경 속으로...

기사입력 2014-03-04 03:00:00 | 기사수정 2014-03-04 08:28:04



| 기사보내기 >

### 일상의 속도를 잊게하는 두 전시 '달의 변주곡'전 & '하늘땅바다'전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풍경으로 일상의 심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달의 변주곡'전에 나온 다비드 클라르바우트의 '여행(위쪽)'은 영상음악처럼 위안과 휴식을 주는 자연의 이미지를, '하늘땅바다'전에 등장한 크레이크 윌시의 영상작품은 빛의 변화로 눈부신 풍경을 보여준다. 박남준아트센터 아트선재센터 제공

공원 벤치에서 출발한 여행은 오뎅 산책길과 계곡,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울창한 숲을 지나 초록 들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막을 내린다.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12분 여정이 눈 감작하는 동안 금세 지나간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평화로운 풍경이 번잡한 마음을 정화해준다.

경기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의 '달의 변주곡'전에 등장한 벨기에 작가 다비드 클라르바우트의 영상 작품 '여행'이다. 명상음악이 주는 치유의 느낌을 비디오 작품으로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성공적이다.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풍경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데 실제로는 3년에 걸쳐 하나하나의 장면을 컴퓨터로 만든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선 속도의 압박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일상 탈출의 자유를 맛보게 하는 영상과 설치작품이 선보였다. 6월 29일까지, 4000원, 031-201-8571

자극적 양념은 빼고 심심한 맛이 매력적인 전시가 또 있다.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인, 옴시스아트, 원앤제이, 스케이프 등 서울 소격동 주변 6개 전시장에서 열리는 '하늘땅바다'전. 제목 그대로 자연 풍광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기회다. 23일까지.

### ○ 자연을 보는 여유

'하늘땅바다'전에선 수평선, 지평선을 원 없이 보여준다. 호주 예술기관 MAPP(Media Art Asia Pacific)에서 기획한 전시로 호주에 이어 서울에 왔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선보인 네덜란드 작가 안 디베츠의 1970년대 초 작품 'Horizon' 시리즈는 카메라 프레임을 기울여 만든 수직 수평 사선의 독특한 바다풍경으로 눈길을 끈다. 흔들리는 버티컬 블라인드에 밀려드는 파도의 영향을 투사한 데릭 크래클로, 90여 개 선물이 밀집한 풍경을 해를 때부터 해질 녘까지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변화로 연출한 크레이크 윌시 등 호주 작가의 작업이 주목된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을 보여주면서도 '달의 변주곡'전은 시간성에 대한 성찰을, '하늘땅바다'전은 공간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한다. 굳이 주제와 개념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삶의 속도를 점검하고 싶거나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고 싶을 때 둘러볼 만하다.

고미석 문화전문기자·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 4) CINE21 씨네21 (MAR 03, 2014)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5998](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5998) 뉴스

### [culture highway]

#### [culture highway] 김수현 가니 박유천 온다

Like

글 : 씨네21 취재팀 | 글 : 차우진 | 2014-03-03

Share it    |  

### 북촌 앤딩

북촌 곳곳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진다. 호주 예술 기관 MAAP(Media Art Asia Pacific)가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북촌 일대 여섯곳의 갤러리와 함께 <하늘땅바다展>을 2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선보인다.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15명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이동해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된다. 고즈넉한 북촌 길을 누비는 재미도 빼놓지 말자.

## 5) E-DAILY 이데일리 (FEB 28, 2014)

## 북촌에 가면 '수평선'이 보인다

입력시간 | 2014.02.28 09:13 | 김인구 기자 clark@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 - | ≡ | ◁ | ▷ |



[AD] "멀티슬루션 2주 사용 후.." 여배우 피부관리비결.. 충격!

서울 북촌 6개 갤러리 참여 '하늘땅바다' 전  
아트선재-스케이프-옵시스-원앤제이-이화익 등  
호주 MAAP와 공동 한·중·호 작가 20인 영상작품  
북촌 탐방하고 전시도 보는 이색체험



[이데일리 김인구 기자] “자, 갤러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갤러리스케이프는 지나가면서 밖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은 옵시스아트,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마지막에 아트선재센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영상 7도 안팎. 따뜻하게 내리찍는 햇볕과 상쾌한 공기. 옛 궁궐과 미술관의 거리인 북촌을 걸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를 중심으로 팔판동·가회동 등에 퍼져 있는 6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투어 전시가 열렸다. ‘하늘땅바다’ 전. 사립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진행하기에는 제법 스케일이 있다. 게다가 미디어 아트 아시아 퍼시픽(MAAP)이라는 호주의 아트프로젝트 지원기관이 합세했다. 제목만큼이나 글로벌하고 다채롭다.

이번 전시는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겸 큐레이터가 MAAP의 킴 메이첸 디렉터와 뜻이 통하면서 성사됐다. 한국·중국·호주의 3개국을 순회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동시대 예술가 20여명의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상작품을 소개한다. 3월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중국 상하이(4~7월), 호주 브리즈번(9~11월)으로 이어진다.



바바라 캠펠 '클로즈, 클로즈(close, close)'(사진-임앤제이갤러리)

다른 5곳 갤러리 전시도 면면이 무게감이 있다.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인 정연두 작가는 이화익갤러리에 두 쪽의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수공기억' 연속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녹화된 기차길과 기차여행을 한 남자의 인터뷰다.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합에서 여러 개공간의 숨을 깨달게 된다.

호주의 바바라 캠펠은 관객참여형의 영상을 선사한다. 전시장 한 벽면에 '클로즈, 클로즈'라는 영상이 흐르는데 가로줄로 된 일부분만 보인다. 전체를 보기 위해선 관객이 영상 앞에서 앞뒤로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에 따라 지평선 영상이 위아래로 움직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찍은 내용은 동아시아와 호주를 거치는 철새인 도요새의 여정이다. 마치 이번 전시의 순회 여정을 뜻하는 것 같다.

이밖에도 실파 굽타의 '인도 지도', 황공신의 '탁구의 또 다른 규칙' 등은 신선한 자극을 준다. 관람은 무료다.



바바라 캠펠 '클로즈, 클로즈(close, close)'(사진-임앤제이갤러리)

다른 5곳 갤러리 전시도 면면이 무게감이 있다.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인 정연두 작가는 이화익갤러리에 두 쪽의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수공기억' 연속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녹화된 기차길과 기차여행을 한 남자의 인터뷰다.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합에서 여러 개공간의 숨을 깨달게 된다.

호주의 바바라 캠펠은 관객참여형의 영상을 선사한다. 전시장 한 벽면에 '클로즈, 클로즈'라는 영상이 흐르는데 가로줄로 된 일부분만 보인다. 전체를 보기 위해선 관객이 영상 앞에서 앞뒤로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에 따라 지평선 영상이 위아래로 움직여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찍은 내용은 동아시아와 호주를 거치는 철새인 도요새의 여정이다. 마치 이번 전시의 순회 여정을 뜻하는 것 같다.

이밖에도 실파 굽타의 '인도 지도', 황공신의 '탁구의 또 다른 규칙' 등은 신선한 자극을 준다. 관람은 무료다.

메이첸은 “처음엔 한 군데 갤러리에서 준비했으나 여의치 않았는데 김선정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6개 갤러리에 분산해 전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투어링 전시는 처음이지만 매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02-733-8945. [XML](#)

6) HANKYOREH한겨레 (FEB 28, 2014)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26286.html>



7) SBS (FEB 28, 201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71525](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71525)

8) MAGZINE JUNGLE 매거진 정글 (FEB 27, 2014)

[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41&master\\_idx=15873&main\\_menu\\_idx=46&sub\\_menu\\_idx=47](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41&master_idx=15873&main_menu_idx=46&sub_menu_idx=47)

9) HANKYOREH한겨레(FEB 27, 201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26141.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26141.html)

10) HANKOOK ECONOMY서울경제 (FEB 27, 2014)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402/e20140227185211118220.htm>

11) HANKYUNG ECONOMY 한국경제 (FEB 26, 20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2506841>

12) MUNHWA ILBO문화 일보 (FEB 25, 20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2501032530048002>

13) YTN NEWS (FEB 25, 2014) [http://www.ytn.co.kr/\\_ln/0106\\_201402252250247381](http://www.ytn.co.kr/_ln/0106_201402252250247381)

14) SEGYE 세계일보 (FEB 25, 20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25/20140225005134.html?OutUrl=naver>

15) HERALD NEWS 헤럴드 경제 (FEB 24, 20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4000591&md=20140227005129\\_BC](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4000591&md=20140227005129_BC)



16) KYUNGHYANG SHINMUN 경향신문 (FEB 24, 2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2385&code=96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42385&code=960202)

17) HANKOOK ILBO 한국일보(FEB 24, 2014)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402/h2014022422093884310.htm>

18) NEWS1 뉴스1 (FEB 23, 2014) <http://news1.kr/articles/1553917>

19) UNION PRESS 유니온 프레스 (FEB 23, 2014)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561>

20) YONHAP NEWS 연합뉴스 (FEB 21, 2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769935>

21) HERALD NEWS 헤럴드 생생 뉴스 (FEB 21, 20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1000886&md=20140224003438\\_BC](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1000886&md=20140224003438_BC)

22) CNB NEWS 씨엔비 뉴스 (FEB 21, 2014)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27229>

23) F.OUND 파운드 매거진 (FEB 20, 2014) <http://foundmag.co.kr/335747>



24) CNB NEWS 씨엔비 뉴스 (FEB 19, 2014)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26958>

25) CHEONJI ILBO천지 일보 (JAN 14, 201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4>